

# 일본 상대 문헌 속의 게이타이(繼體)천황과 고대 환동해(環東海) 교류에 관한 고찰\*

이 창 수\*\*

echance@khu.ac.kr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고시(越)의 고분문화와 환동해교류 |
| 2. 게이타이(繼體)천황기의 특징        | 5. 구즈류강의 치수왕 전승       |
| 3. 게이타이 천황의 원향과 ‘미쿠니(三國)’ | 6. 맺음말                |

Key word : 게이타이천황(the King Keitai), 古事記(Kojiki), 日本書紀(Nihonshoki), 환동해(east sea rim), 미쿠니(Mikuni)

## 1. 머리말

5~6세기 고대 일본의 역사는 주로 야마토를 중심으로 한 세토내해(瀬戸内海)연안과 북큐슈(北九州)를 무대로 전개되는 왕권국가형성 과정을 기술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러한 사항은 일본의 최고(最古) 문헌 인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의해 방증하는 것이 통설이다. 즉 양 문헌은 야마토 조정 편에 선 지배자들이 편찬한 설화 및 전승을 바탕으로 그와 관계된 씨족의 분포 등 8세기에 잔존한 중앙호족들과의 교감을 통해 편찬된 문헌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해연안에 해당하는 서일본의 호쿠리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慶熙大學校 日本語學科 副教授(국제지역연구원 일본학연구소장)

쿠(北陸), 산인(山陰)지방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이들 지역의 유적의 유물의 발굴성과는 전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고대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말없이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접점과 단서를 문헌에서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바로 게이타이(繼體)천황 기사이다. 게이타이 천황은 일본고대사에서든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오진(応神)천황의 5세손이라는 방계 출신이라는 점과 천황에 즉위 후 20년 만에 아마토에 입성한다는 특이한 사정, 그리고 그 출자나 왕위계승의 문제, 심지어 왕조교체설에 이르기까지 현재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본거지에 대한 논란이다. 『日本書紀』에 따르면 그는 ‘에치젠(越前)’이라는 서일본지역에서 성장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아마토조정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서 그것도 방계 출신을 고대 정권의 심장부로 인도하여 천황으로 추대한 특수한 이력만으로도 이 천황은 오래전부터 관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변방에 지나지 않던 이 지역에서 천황을 옹립했다는 것은 아마토정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약했을지 몰라도 나름 독자적인 색채와 발전을 거듭한 유력한 지역수장이 출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5~6세기 문헌기록이 매우 빈곤하고 특히 동해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면 단순히 문헌자료에만 의지하여 이 지역과 일본의 고대사 및 고대 한반도와의 교류사를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대 일본의 문헌자료에 나타난 게이타이 천황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 게이타이천황의 거점이라 볼 수 있는 에치젠과 동해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 환동해 교류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게이타이(繼體)천황기의 특징

『日本書紀』에 따르면 게이타이천황의 재위기간은 25년으로 대략 6세기초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마지막 기사의 별주(別注)를 감안

1) 鬼頭清明(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p.137

하면 재위 기간은 28년까지 연장되며 심지어 안칸(安閑)천황의 즉위전기의 기사와 비교해 보면 2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등 『日本書紀』 편찬당시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古事記』의 기년과 비교하면 논란은 더 복잡해진다. 이러한 연대적 오차의 발생은 게이타이 천황기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켜 2차 대전 이전부터 일찍이 히라코 타쿠레이(平子鐸嶺)의 『日本書紀』기년 개작설을 시작으로 기다 사다키치(喜田貞吉)의 양조병립설로 이어졌으며<sup>2)</sup> 하야시야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의 내란설<sup>3)</sup>을 거쳐 최근에는 나오키 고지로(直木孝次郎)<sup>4)</sup>로 그 논의가 계승되어 왔다.

한편 게이타이천황은 2차 대전 이후 일본고대사의 최대 가설이었던 ‘기마 민족정복설’<sup>5)</sup>의 영향으로 새삼 부각된 존재였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계승한 미즈노 유(水野祐)의 소위 ‘3왕조교체론’<sup>6)</sup>에서는 신왕조의 기점에 해당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직전 부레쓰(武烈)천황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 대가 끊겼기 때문에 게이타이천황은 실제로 현 일본천황의 직계 선조가 되는 셈이다. 미즈노 유는 나라(奈良)

- 2) 게이타이천황 기년의 오차에 따른 2차대전 이전 논쟁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미쓰사다의 상세한 설명이 있다. (井上光貞(1965), 『日本の歴史1・神話から歴史へ』中央公論社, pp.474~477)
- 3) 하야시야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는 게이타이천황의 옹립과 즉위를 반대했던 세력은 소가씨(蘇我氏)로 보고 그 저항에 의해 게이타이천황과 오토모씨는 즉위 후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야마토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林屋辰三郎(1971)『日本の古代文化』岩波書店 pp.131~134)
- 4) 나오키 고지로(直木孝次郎)는 게이타이천황은 부레쓰(武烈)천황 사후 혼란을 틈타 오미(近江) 또는 에치젠방면에서 일어난 호걸의 한사람으로 오진천황의 5세손을 자칭하여 가와치(河内)에 진출, 그 지역의 호족과 연계하여 세력을 키운 다음 오토모씨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왕위에 올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直木孝次郎(1986), 『日本古代國家の構造』, 青木書店)
- 5) 에가니 나미오(江上波夫)는 일본의 고대국가는 농경적 주술종교적 원주민이 아니라 동북아시아계의 왕후적기마민족의 정복에 의해 4세기무렵에 확립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복민족은 먼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변한을 기지로 삼아 4세기초에 북규수에 침입하고 4세기말에 기나이(畿内)에 진출하여 최초의 통일국가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江上波夫(1975), 『騎馬民族國家-日本古代史のアプローチ』, 中央公論社)
- 6) 미즈노 유(水野祐)는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역대천황계보를 면밀히 고증하여 황조신으로 시작되어 진무(神武)천황이하 9대의 계보는 율령국가가 완성될 무렵 천황통치의 신격화를 위해 조작된 것에 불과하며 스진(崇神)왕조, 닌토쿠(仁德)왕조, 그리고 현재에 이어지는 게이타이(繼體)왕조라는 3왕조 교체설을 제창했다. (水野祐(1970), 『日本古代の國家形成-征服王朝と天皇家』, 講談社)

시대 한풍시호(漢風諡號)를 한자 두 글자로 제정 시 이 천황을 ‘게이타이(繼體)’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동일혈통 계승에 표기하는 ‘嗣’를 사용하지 않고 혈통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繼’를 채택한 것은 이미 나라(奈良)시대의 관료에게 이 천황 대에 혈통이 끊어졌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주장하여<sup>7)</sup>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게이타이천황은 고대국가 성립기의 커다란 전환점으로서 일본 고대사의 수수께끼에 싸여있는 왕조이자 독특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국내정세에 해당하는 기사는 전체분량의 겨우 1/3정도에 불과하며 그것도 천황의 등극 과정을 그린 즉위전기의 기사를 빼면 세 번에 걸친 천도기사와 왕자부부의 연애가요담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이한 즉위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즉위이후 통치력이나 정권의 성격에 대한 기재가 있을 법 하지만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사는 아쉽게도 문헌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전체 분량의 2/3를 차지하는 내용은 백제(百濟), 임나(任那), 신라(新羅), 고구려(高麗) 등 고대 한반도와와의 관계 및 교류 기사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日本書紀』의 한국관계 기사를 면밀하게 분석한 고대 역사학자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는 『日本書紀』의 게이타이 천황기는 임나 4현의 백제할양, 백제와 반과(伴跛)와의 갈등, 오미케나(近江毛野)臣의 남가라 부흥경영, 그리고 가라국의 동향 등 크게 4분류하여 한반도와와의 관계기사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8)</sup>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기사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게이타이 재위 2년 기사는 ‘남해(南海)’에 있는 탐라인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했다는 기사가 전후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방위 면에서 보면 일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술일 뿐더러 『백제본기(百濟本記)』의 인용표기도 없다는 점에서 백제 측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본문 상의 기사도 곳곳에 『百濟本記』를 제시하며 그와 비교 고증하는 형태로 기술된 점, 그리고 임나의 4현 양보가 결국 백제에 넘어가게 되는 조치의 전말 등으로 볼 때 실제 이 기록의 원전 또는 편찬 당시 백제계의 사관 또는 백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의 기술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문헌의

7) 水野祐(1983), 『卑弥呼王朝から倭王朝へ』, 『歴史と旅』第十卷九号, 秋田書店, p.49.

8) 三品彰英(2002), 『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下, 天山舎, pp.166~168.

면밀한 고찰을 통해 고대 한일 관계사를 다룬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도 게이타이천황기는 예부터 일본 내에 전해져 온 ‘구기(旧記)’가 아니라 오로지 백제의 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기사에 나타난 인명과 지명 등의 고유명사의 필사법 및 전체의 서풍에서도 백제와의 친연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11년 이후 20년까지의 기사가 통째로 없는 것은 『百濟本記』 그 자체의 탈루에서 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9)</sup> 이러한 현상은 게이타이기록에 머물지 않고 그의 적자로 탄생하여 3대 후 긴메이(欽明)천황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며 기사의 수식적 표현을 제외시켜 보면 백제의 친근성을 보여주는 기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 문헌과 고대 중국문헌의 비교검토를 통해 그 수용과정을 분석한 고지마 노리유키(小島憲之)의 분석에 따르면 재위 24년 2월 기사에 실린 장문의 조칙은 『예문유취(藝文類聚)』에 의해 작문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sup>10)</sup> 게이타이기사가 편찬되기 까지 인용 또는 윤색자료로 활용된 중국의 고전문헌은 『사기(史記)』, 『한서(漢書)』를 비롯하여 총 14종에 달하며 별주에 소개한 대로 『百濟本記』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기술된 흔적으로 보아 고도의 한문 능력과 문필력을 소유한 자의 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떠나 게이타이천황기는 일본 고대사를 넘어 고대 한일관계,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 3. 게이타이 천황의 원향과 ‘미쿠니(三國)’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기사를 바탕으로 게이타이 천황이 즉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天皇이 이미 세상을 떠나도 후계를 이을 왕이 없었다. 그래서 호무다(品太)天皇의 5世孫인 오호도 미코토(袁本杼命)를 지카쓰오미(近淡海)국에서 모셔와 다시라

9) 池内宏(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p.142.

10) 小島憲之(1962), 『上代日本文学与中国文学(上) - 出典論を中心とする比較文学的考察』, 塙書房, p.384.

카(手白髮)命과 결혼시켜 天下를 다스리게 했다.<sup>11)</sup>

② 오오도(男大迹)天皇 【다른 이름은 ‘히코후토 미코토(彦太尊)’라 한다.】 은 호무다(譽田)天皇의 5世孫이며 ‘히코우시(彦主人)王’의 아들이다. 모친은 ‘후루히메(振媛)’라고 한다. 후루히메(振媛)는 이쿠메(活目)天皇의 7世孫이다. 天皇의 부친은 후루히메의 용모가 매우 예쁘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오미(近江)국의 다카시마(高嶋郡)의 미오(三尾)의 별저에서 사람을 보내 미쿠니(三國)의 사카나이(坂中井)에 가서 신부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天皇을 낳았다. 天皇은 유년시절에 父王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후루히메가 한탄하며 “나는 지금 멀리 고향을 떠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부모를 잘 모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카무고(高向)에 돌아가 부모의 안부를 돌보면서 【高向은 ‘고시노미치노쿠치(越前)國’의 邑名이다.】 天皇을 奉養하겠다.”고 말했다.<sup>12)</sup>

③ 丙寅(6일)날에 오미(臣)과 무라지(連)등을 파견하여 군왕 깃발을 갖고 천자의 수레를 마련하여 미쿠니(三國)로 迎奉하러 갔다. 병사와 무기가 곁에서 호위하고 容儀를 숙정하여 수레의 전방을 경호하며 홀연히 도착했다. 이에 오오도(男大迹)天皇은 조용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호상(胡牀)에 앉아 신하들을 정렬시켜 이미 제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下略)<sup>13)</sup>

상기 인용문을 보면 게이타이천황의 본거지에 대한 『古事記』와 『日本書紀』 사이에 약간의 기술적 편차가 보인다. 먼저 『古事記』(①)는 조정에서 천황을 맞이한 곳이 지금의 시가(滋賀)현에 해당하는 ‘지카쓰오미(近淡海國)’ 즉 고대 ‘오미(近江)’지역을 말하고 있다. 반면 『日本書紀』(②)는 천황의 부친 히코우

11) 倉野憲司・武田祐吉(1958), 『古事記・祝詞(日本古典文学大系1)』, 岩波書店. p.334의 본문 <天皇既崩、無可知日續之王。故、品太天皇五世之孫、袁本杼命、自近淡海國、合上坐而、合於手白髮命、授奉天下也。>

12) 坂本太郎他3人(1979),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68)』, 岩波書店, p.19의 본문 <男大迹天皇【更名彦太尊。】譽田天皇五世孫、彦主人王之子也。母曰振媛。振媛、活目天皇七世之孫也。天皇父聞振媛顔容姝妙甚有嫩色、自近江國高嶋郡三尾之別業、遣使聘于三國坂中井、納以爲妃。遂産天皇。々々幼年、父王薨。振媛乃歎曰、妾今遠離桑梓。安能得膝養。余歸寧高向、【高向者、越前國邑名。】奉養天皇。>

13) 『日本書紀』, 앞의 책, p.21의 본문 <○丙寅、遣臣連等、持節以備法駕、奉迎三國。夾衛兵仗、肅整容儀、警蹕前駟、奄然而至。於是、男大迹天皇、晏然自若、踞坐胡牀。齊列陪臣、既如帝坐。(下略)>

시왕이 에치젠의 ‘사카나이’로부터 후루히메를 비(妃)로 맞아 천황을 낳았지만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후루히메는 고향인 에치젠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어린 게이타이천황을 키웠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조정에서 중신들이 ‘미쿠니’로 찾아가서 ‘오오도왕’을 맞이했다고 부연하고 있는 점(③)으로 보아 『日本書紀』는 ‘미쿠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는 게이타이천황의 본거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각각 ‘오미(近江)설<sup>14)</sup>’와 ‘에치젠(越前)설<sup>15)</sup>’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양 문헌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샤쿠니혼기(釋日本紀)』에 인용된 『조구키(上宮記)』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그 본거지를 ‘기나이(畿内)’에 구하는 새로운 주장마저 제기되기도 한다.<sup>16)</sup>

한편 양 문헌에는 게이타이천황의 비(妃)와 후손계보 기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日本書紀』에서는 6번째 비(妃)인 ‘미오기미 가타히(三尾君 堅槭)’의 딸 ‘야마토히메(倭比賣)’를 맞아 그 사이에서 태어난 2남 2녀 중 둘째인 ‘마로코(菀子)왕자’를 ‘미쿠니기미(三國公)의 선조’로 설명하는 분주가 눈에 띈다.<sup>17)</sup> 반면 『古事記』도 『日本書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후손계보 중 이 왕비에 대해서는 ‘미오기미’의 딸로 표기하고 있을 뿐 ‘미쿠니기미’의 선조라는 기사는 없다.<sup>18)</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日本書紀』는 게이타이천황이 ‘미쿠니기미’의 조상이자 ‘미쿠니’출신임을 강조한 듯 보인다.

반면 『古事記』는 ‘미쿠니’의 선조를 『日本書紀』보다 훨씬 앞당기고 있다. 15대 오진(応神)천황의 후손계보에 이미 ‘미쿠니 기미(三國君)’의 조상이 있기 때문이다. 양 문헌에서는 모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선대 계보 없이 게이타이천황을 오진천황의 5세손으로 기록하여 오진천황과 친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古事記』는 오진천황의 6번째 왕비인 ‘오키나가 마와가 나카히메(息長

14) 岡田精司(1983), 『近江王朝』, 『歴史と旅』第十卷九号, 秋田書店, pp.61~64.

15) 米沢康(1992), 『継体天皇の出身地をめぐる異伝について』, 『日本古代の神話と歴史』, 吉川弘文館, p.128

16) 大橋信弥(1984), 『日本古代国家の成立と息長氏』, 吉川弘文館, p.112.

17) 『日本書紀』, 앞의 책, p.25의 본문 <前略>次、三尾君堅槭女曰倭媛。生二男二女。其一曰大嬢子皇女。其二曰菀子皇子。是三國公之先也。其三曰耳皇子。其四曰赤姫皇女。>

18) 『古事記』, 앞의 책, p.336의 본문 <前略>又娶三尾君加多夫之妹、倭比賣、生御子、大郎女。次丸高王。次耳上王。次赤比賣郎女。【四柱】>

眞若中比賣)’와의 사이에서 ‘와카노게후타마타(若野毛二侯)皇子’을 낳았다는 기사 말미에 이 자가 이모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를 ‘오이라쓰코’라 소개하고 이 자의 별명을 ‘오호호도(意富富杼)王’라 한 후 ‘미쿠니기미’ 등의 조상이라 기술하고 있다.<sup>19)</sup> 이 ‘오호호도왕’에 대해서는 양 문헌 모두 그 이상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데 천황의 출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료인 『上宮記』一云과 비교해 보면 게이타이천황의 부친 히코우시왕은 ‘오호호도(意富富杼)王’의 손자가 되며 그렇게 보면 게이타이천황은 오히려 ‘미쿠니기미’의 후손이 되는 셈이다. 즉 양 문헌 모두 오진천황 5세손이라는 점이 일치하고 또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계보로 인정할 수 있다면 『古事記』 역시 ‘미쿠니’가 게이타이천황의 원향이라는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쿠니기미’의 직계 후손에 해당하는 게이타이천황의 부친이 오미지역으로 진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日本書紀』는 미오출신의 왕비를 맞아 태어난 왕자를 ‘미쿠니’의 조상으로 설정하여 미오세력이 ‘미쿠니’에 진출한 것을 묘사한 반면 『古事記』는 ‘미쿠니’의 개척자를 오진천황의 자손으로 끌어올려 게이타이천황이 그 후손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오진천황 이후 한반도와의 관계 및 한국계 이주민들의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후 더욱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고대 한반도와의 왕성한 교류가 ‘미쿠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게이타이천황의 모친 후루히메 역시 이 ‘미쿠니’의 유력 호족의 후손으로 볼 수 있으며 게이타이 천황의 웅립에 ‘미쿠니(三國)氏’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반영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미쿠니기미(三國公)’는 덴무(天武)천황 13년 10월 기사에 소개된 팔색 성(八色姓)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마히토(眞人)’라는 가바네(姓)을 받는다.<sup>20)</sup> 당시 외진 변방 지역의 지방호족

19) 앞의 책, p.260의 본문 <又娶昨倭長日子王之女、息長眞若中比賣、生御子、若沼毛二侯王。(中略)又此品陀天皇之御子、若野毛二侯王。娶其母弟、百師木伊呂采、亦名弟日賣眞若比賣命、生子、大郎子。亦名意富富杼王。次忍坂之大中津比賣命。次田井之中比賣。次田宮之中比賣。次籙原之琴節郎女。次取上賣王。次沙彌王。【七王】故、意富富杼王者、【三國君、波多君、息長坂君、酒人君、山道君、築紫之末多君、布勢君等之祖也。】>

20) 『日本書紀』下, 앞의 책, p.465의 본문 <○冬十月己卯朔、詔曰、更改諸氏之族姓、作八色之姓、以混天下萬姓。一曰、眞人。二曰、朝臣。三曰、宿禰。四曰、忌寸。五曰、道師。六曰、臣。七曰、連。八曰、稻置。是日、守山公・路公・高橋公・三國

으로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점에서 볼 때 ‘미쿠니’의 마히토 등극은 게이타이 천황을 아마토 수장으로 발탁시킨 미쿠니 세력이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기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목할 사항은 이 지역이 고대 한반도에서 볼 때 동해를 북상하여 도착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 전파의 또 다른 루트였다는 점이다.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마토에서 보면 하나의 변방지대에 불과하고 따라서 문헌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도 적지 않지만 문헌 기록의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성과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이 지역의 문화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 4. ‘고시(越)’의 고분(古墳)문화와 환동해교류

‘고시(越)’라는 말은 고대 ‘에치젠(越前)’, ‘엣추(越中)’, ‘에치고(越後)’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일본 서부의 후쿠이(福井)현에서 니이가타(新潟)현에 이르는 곳이자 우리나라의 동해에 면해 있는 지역이다. ‘고시’에 대한 상대 문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日本書紀』에서는 스이닌(垂仁)천황 2년 가라(加羅)왕자 ‘쓰누가아라시토’의 도일전승에 ‘고시’의 ‘게히(氣比)’에 찾아왔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역시 同천황기 3년에 ‘아메노히보코(天日槍)’ 도일전승에서는 중간 경유지로 등장한다. 이후 주아이(仲哀)천황에서 오진천황기에는 간헐적으로 간단한 행차이력지로만 소개되어 있을 뿐 이렇다 할 전승이 없다. 그리고 바로 다음이 게이타이천황의 즉위기사이며 그 이후에는 간헐적인 외교기사가 보일 뿐이다. 이처럼 게이타이천황 즉위 이야기를 빼고서는 이 지역에 관한 기사의 내용은 경유지나 행차지이며 그것도 모두 대외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대외관계는 예외 없이 고대 한반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럼 에치젠(越前)지역의 고대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의 발굴성과를 살펴보자.

公·當麻公·茨城公·丹比公·猪名公·坂田公·羽田公·息長公·酒人公·山道公, 十三氏, 賜姓曰真人。>

먼저 모친 후루히메의 고향으로 등장하는 미쿠니의 ‘다카무쿠(高向)’라는 곳은 지금의 후쿠이현 사카이(坂井)市 마루오카초(丸岡町)주변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동해로 흘러가는 구즈류강(九頭龍川) 선상지 북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후쿠이(福井)平野가 넓게 형성된 곳이다. 후쿠이현을 포함한 호쿠리쿠(北陸)지역에는 동해연안을 따라 4~6세기중엽 고분시대에 해당하는 전방후원분(前方後円墳) 약 200기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110기가 후쿠이(福井)현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그 90%는 구즈류강(九頭龍川)유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 강은 말 그대로 동해연안지역의 최대 고분군이 형성된 지역이다. 강의 남쪽 기슭에는 마쓰오카(松岡)고분군으로 데구리가조야마(手繰ケ城山),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 도리코시아마(鳥越山)고분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반대편 강 상류 북쪽 산기슭에는 마루오카(丸岡)의 로쿠로세야마(六呂瀬山)古墳群 등 4기의 고분 등 대형 전방후원분이 이어져 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이 고분군이 마루오카(丸岡)산의 정상 부근에 축조되어 마치 동해와 후쿠이(福井)平野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영되었다는 점이다. 강을 사이에 둔 이 두 거대 고분군은 일찍이 그 규모로 볼 때 고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유력호족의 묘역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오하시 노부아(大橋信弥)는 덴무천황시대에 마히토(真人)의 지위까지 오른 ‘미쿠니기미’의 본거지로 추정하고 있다.<sup>21)</sup>

『日本書紀』는 게이타이천황의 모친에 대해서 단지 ‘용모가 뛰어난 절색의 미안’이라는 기록만 있을 뿐 그 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지리적인 조건과 고분의 규모로 비추어 볼 때 그 가문은 구즈류강이 만든 비옥한 후쿠이(福井)平野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한 지방의 대수장급 유력호족이라는 점을 충분히 가늠케 한다. 나아가 어린 시절 게이타이천황이 성장한 곳에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마루오카(丸岡)古墳群의 북쪽에는 6세기초에 급격하게 형성된 요코야마(横山)古墳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게이타이천황의 아들 마로코(椀子)왕자를 시조로 한 미쿠니기미(三國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sup>22)</sup> 쓰카구치 요시노부(塚口義信)는 미쿠니(三國)향을 지배하던 아미아타이

21) 大橋信弥(1984), 앞의 책, p.118.

22) 福井県(1998), 『図説・福井県史』, 福井県, p.26.

(海直)氏의 묘역으로 보고 그 부근인 사카이(坂井)郡의 본거지를 미쿠니 마히토(三國真人)氏로 추정하고 있다.<sup>23)</sup> 미쿠니(三國)항은 지리적으로 구즈류강 하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동해에 면해 있으면서 산인(山陰)지방과 규슈 그리고 고대 한반도와 해상교통이 번성했던 곳이기도 했다. 특히 고대 에치젠(越前) 지역은 철과 비취로 만든 경옥의 교역 거점이기도 했다. 1999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쿠이(福井)시 이즈미타(泉田)町の ‘하야시 후지야마(林·藤島)遺跡’에서는 야요이(弥生)시대 후기의 유물로 보이는 약 1000점이상의 철기와 제철 흔적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것은 일본 전국에서 최다 출토 수에 해당한다. 고대 역사학자 아마오 유키히사(山尾幸久)는 이곳을 한반도에서 전래된 제철 지역으로 보고 게이타이천황의 실명인 ‘오호도왕’의 ‘호도’라는 말은 ‘불이 있는 화로(火處)’라고 해석하며 ‘제철왕’의 이미지로서 게이타이천황을 설명하는 등<sup>24)</sup> 즉 당시 철기의 선진지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상기 유적지가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古墳에서 약 3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치젠’은 게이타이천황을 키운 풍토적 배경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고분군은 외형적 규모만이 아니라 발굴된 부장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석관(石棺)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석관묘의 출현 시기는 야요이시대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는 농경문화에 동반하여 한반도 남부에서 전파된 외래문화였다. 그 기원은 야요이시대 초기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묘제인 고인돌 형식이 점차 석관묘로 변화된 것이다. 석관은 사자를 두껍게 매장하는 후장(厚葬)의 관념에서 나온 묘제로 석관에 안치된 사자를 오랫동안 동물 등 외부의 위해로부터 지키고 동시에 주위에 호를 파 그 구획 내를 성역화한다는 사상과 의지의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sup>25)</sup>

앞서 언급한 마쓰오카(松岡)고분군의 분묘에도 피장자를 모두 석관에 안치하고 있으며 특히 석관을 갖는 수장묘의 계보가 이곳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석관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석관의 모양이 배를 형상화한 주형석관(舟形石棺)이 많다는 점이다. 고고

23) 塚口義信(2008), 『継体天皇の出自とその即位事情を探る(下)』『つどい』242号, p.2

24) 山尾幸久(1986), 『日本古代の国家形成』, 大和書房, p.77.

25) 片岡宏二(2006), 『弥生時代渡来人から倭人社会へ』, 雄山閣, pp.20~22.

학자 모리 고이치(森浩一)는 동해 연안의 문화를 생각할 때 해상교통수단으로서 ‘배(舟)’의 중요성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듯이<sup>26)</sup> 피장자의 관을 배로 형상화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관념의 산물일 것이다. 사토 고이치(佐藤晁一)는 이 지역의 석관의 종류를 형태에 따라 주형(舟形), 귀형(長持形), 가옥형(家形), 상자형(箱形)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형석관의 분포가 이즈모(出雲), 시시지(宍道), 단고(丹後)반도, 후쿠이 등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중에서도 후쿠이는 전체 26건 중 가장 많은 12건에 해당하며 그것이 제작되는 고분시대 초기에는 석관가공기술이 아직 없었던 단계이므로 이는 해외에서 건너 온 신기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한 바 있어<sup>27)</sup> 해상교통을 이용한 왕성한 환동해 교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횡혈식 석실(橫穴式石室)의 출현이다. 고고학자 시라이시 타이치로(白石太一郎)는 일본의 고분문화가 5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혈형에서 횡혈계로 매장방식이 바뀐 것이라 하고 그 흐름이 중국의 위진남북조기에서 시작하여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에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8)</sup> 특히 다량의 토기가 부장된 것은 한반도 고분의 의례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하여 고분 축조방식이 한반도 남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도리고시야마(鳥越山)古墳의 발굴조사에 따르면 이 고분은 5세기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여기에서도 예외 없이 대형 주형석관과 횡혈식석실이 발견되었고 석관 내부를 조사한 결과 니혼마쓰(二本松)古墳의 대수장 은장관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피장자는 당시 해외 즉 한반도와 왕성한 교류를 수행했던 대수장이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마쓰오카고분군에 속하는 니혼마쓰야마(二本松山)고분은 동해의 해상교통을 전망할 수 있는 해발 273m의 산 정상에 축조된 것으로 거기에서는 주형석관 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부장품이 발굴되었

26) 森浩一(1983), 『日本海の古代文化と考古学』, 『シンポジウム 古代日本海文化』, 小学館, p.49

27) 佐藤晁一(1983), 『石棺』, 『歴史公論3-古代の日本海文化(特大号)』, No.88, 雄山閣, p.117.

28) 白石太一郎(2006), 『墓と他界観』, 『列島の古代史7-信仰と世界観』, 岩波書店, pp.180~181.

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화로운 도금관(鍍金冠)·도은관(鍍銀冠)이다. 이 금관과 은관은 지금까지 日本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루트가 한국의 대가야고분인 고령의 지산동 32호분(5世紀末)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남부에 그 기원을 찾고 있다.<sup>29)</sup> 그런데 고대 일본에서 이와 같은 금관이 출토되는 고분이 여기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미 다카시마(近江高島)의 가모이나리아마(鴨稻荷山)古墳과 교토(京都)의 모즈메쿠루마즈카(物女車塚)古墳, 그리고 나라(奈良)의 후지노키(藤ノ木)古墳에서도 유사한 금관이 발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게이타이 천황이 야마토로 입성하는 이동코스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밖에도 같은 5세기중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엔지야마(泰遠寺山)고분에서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국 서진(西晉, 265~317)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원방격대신수경(半円方格帶神獸鏡)이 발굴되었고 아스와야마(足羽山)고분군과 아사쿠라(朝倉)유적에서는 가야(伽耶)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으로 제작한 이식(耳飾) 한 쌍을 비롯한 갑옷과 철검 등 다양한 무기 등이 발굴된 바 있으며 하라메야마(原目山)유적에서도 역시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검(刀劍)이 대량으로 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sup>30)</sup> 이러한 유물의 발굴 성과를 통해서 볼 때 고대 에치젠(越前)지역은 야요이(弥生)시대부터 동해의 해류를 타고 한반도와의 교류와 문물의 도래가 번성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게이타이 천황의 선조와 모친일가는 고대 한반도와의 왕성한 교류를 수행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야마토 정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루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図説・福井県史』(<http://www.archives.pref.fukui.jp/fukui/07/zusetsu/A03/A031.htm>, 검색일:2013.4.23.)

30) 『越前の古墳と継体天皇③』(<http://ameblo.jp/kadoyas02/entry-11356379691.html> 검색일: 2013.4.26)

## 5. 구즈류강(九頭龍川)의 치수왕 전승

구즈류강(九頭龍川)은 상대 문헌에 단 한 군데 소개도 없는 곳이지만 이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주요 하천이다. 그리고 후쿠이지역에서 게이타이(繼體)천황은 이 거대 하천의 치수를 통해 광대한 후쿠이(福井)평야를 무논(水田)으로 바꾼 것은 이른바 ‘治水王’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즈류강 유역에는 4~6세기의 대형고분이 집중 조영되어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지역에 역대 수장들의 분묘가 축조된 경우는 일본 전국적으로 그 예가 적다. 이는 안정된 권력을 지속적으로 대물림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모두 구즈류강을 내려 보면서 사후에도 후쿠이(福井)평야의 치수 및 풍작을 지켜보는 구조로 조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후쿠이시사(福井市史)』에는

게이타이(繼體)天皇이 에치젠(越前)국에 살면서 오모도(男大迹)王이라 불린 시기에 현재 후쿠이(福井)평야는 큰 호소였다. 거기에 구즈류강, 히노강(日野川), 아스와강(足羽川)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옛날 그 하천들은 바닥이 깊고 사람 사는 땅은 높은 지대여서 상류에서 흘러 온 토사에 의해 강바닥은 점점 올라가 홍수 때마다 수해가 반복되었고 큰 호수도 생겨났다. 그래서 오모도(男大迹)王은 명령을 내려 미쿠니(三國)에서 하구를 열고 대호소의 물을 동해(日本海)로 유출시켜 그 땅을 일대 전원으로 만들고 동시에 강의 흐름을 정하여 수운과 灌漑의 편리를 꾀했다. 31)

상기 전승에 의하면 구즈류강은 비가 많이 오면 자주 범람하여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거친 하천’이었지만 게이타이 천황이 강의 하구를 넓혀 호수를 동해 바다로 흘러보내 후쿠이 평야를 개척하여 고대 에치젠(越前)지역 발전의 초석을 쌓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지금도 구즈류강은 광대한 후쿠이(福井)평야의 수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리적 환경에서 자라나 청년시절을 보낸 게이타이(繼體)천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시대’의 개척자 또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던 존재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만일 선대의 부레쓰(武烈)天皇 사

31) 『九頭龍川地域誌』(<http://www.kkr.mlit.go.jp/fukui/siryou/hen2/syou2/2kodai1.html>, 검색일 : 2013. 4.2)

후 차기 천황으로 옹립되지 않았다면 아마 ‘미쿠니(三國)’의 ‘오오도(男大迹) 대왕’으로 불리며 에치젠 지역의 개척 조상신으로 기리지 않았을까? 『日本書紀』 원년 3월 기사에는 그러한 게이타이천황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보인다.

○戊辰날에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짐이 듣기에 남자가 때가 되어 농사짓지 않으면 天下가 기근(飢)을 받게 된다. 여자가 때에 맞추어 길쌈(績)을 하지 않으면 天下는 추위(寒)에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帝王이 몸소 경작하고 農業을 권장할 것이며 后妃는 스스로 양잠(蠶)을 하며 桑序에 힘쓸 것이다.** 하물며 百寮와 萬族에 이르기까지 農績을 버리고 어찌 富에 이를 수 있으리오. 관리들은 天下에 널리 짐이 품은 바를 알리도록 하라.”고 했다. 32)

상기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은 이와나미판(岩波版) 『日本書紀』 해당 기사의 두주(頭註)에 따르면 그 문장이 중국 고대 문헌 『예문유취(藝文類聚)』의 ‘제왕부(帝王部)’에 나온 문장<sup>33)</sup>을 부분 윤색했다고 해설하고 있다.<sup>34)</sup> 그러나 앞부분은 『예문유취』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문장인데 후반부는 약간 다르다. 즉 원문에는 ‘故, 夫親耕, 妻親績’이라 하여 ‘남편은 스스로 경작하고 부인은 스스로 길쌈을 한다’는 평범한 표현이 『日本書紀』 본문에는 ‘故, 帝王躬耕, 而勸農業, 后妃親蠶, 而勉桑序.’라 하여 남편을 ‘제왕’으로, 부인을 ‘후비’로 표기하고 있다. 즉 게이타이 천황이 몸소 직접 농사에 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자신이 농민처럼 직접 경작을 하고 후비들도 직접 양잠에 종사하는 서민적 천황, 개척자로서의 인상을 담고 있다. 이 모습은 강력한 지방 개척자이자 치수왕으로서의 게이타이 천황을 연상케 하며 더불어 남편 사후 어린 게이타이천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천황을 키운 후루히메의 강한 여성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32) 『日本書紀』下, 앞의 책, pp.23~25의 본문 <○戊辰, 詔曰, 朕聞, 土有當年而不耕者, 則天下或受其飢矣. 女有當年而不績者, 天下或受其寒矣. 故, 帝王躬耕, 而勸農業, 后妃親蠶, 而勉桑序. 況厥百寮, 暨于萬族, 廢棄農績, 而至殷富者乎. 有司普告天下, 令識朕懷.> 참조

33) 『呂氏春秋』<土有當年不耕者, 則天下或受其飢矣. 女有當年不績者, 天下或受其寒矣. 故, 夫親耕, 妻親績>

34) 『日本書紀』下, 앞의 책, p.23.

한편 『日本書紀』에는 게이타이 천황이 즉위 후 아마토의 중심지인 이와레(磐余)로 입성하기까지 19년이 걸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향 에치젠(越前)을 떠나 먼저 지금의 오사카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가와치(河内)의 ‘구스바(樟葉)宮’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즉위하고 5년 후에는 ‘아마시로(山背) 쓰쓰키(筒城)宮’,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는 ‘오토쿠니(弟国)宮’으로 천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마토 입성전에 두 번의 천도과정을 거친 것에 대해 아마토의 강력한 반체제 세력을 제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과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통설이지만<sup>35)</sup> 최근에는 게이타이천황이 에치젠, 오미주변의 대호족 세력들을 단계적으로 흡수하여 아마토(大和)에 입성해 구왕가의 혈통을 잇는 닌켄(仁賢)天皇의 딸 다시라카(手白香)皇女와의 혼인관계라는 형식을 통해 데릴사위의 형태로 왕조를 계승한 것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위지를 포함한 2번의 천도지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구스바’는 가쓰라강(桂川), 우지강(宇治川), 기즈강(木津川)의 세 하천이 합류하는 요도강(淀川) 유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번째의 천도지인 ‘쓰쓰키’는 지금의 교타나베(京田辺)시와 그 주변으로 추정되는 데 역시 기즈강(木津川)의 좌안에 위치하는 곳이다. 그리고 ‘오토쿠니’는 요도강의 지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여 세 곳 모두 하천변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공통점이 있다. 고고학자 모리 고이치(森浩一)는 백제의 고도(古都)가 모두 한강, 금강 주변에 위치한 왕도였다는 입지조건에서 볼 때 이는 4~6세기의 동아시아 주요 왕도가 치수를 염두에 둔 대하천 주변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게이타이천황의 천도지도 그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채택한 것이라 지적하여<sup>36)</sup> 종래 아마토 조정의 왕도 선정 방법과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은 매우 탁월한 식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게이타이천황이 맞이한 8비의 계보를 지리적으로 보면 주로 오미의 비와호수(琵琶湖)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호족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비와호수는 서일본에 위치하는 가장 큰 호수로 고대에는 마치 지중해처럼 호상교통에 의한 교역이 번성한 곳이었다. 게이타이천황이 2명의 비를 맞이한 미오(三尾), 계보에 보이는 사카타(坂田), 오키나가(息長) 등은 모두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비와호수를 중심으로 지역 간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자

35) 直木孝次郎(1986), 『継体朝の動乱と神武伝説』, 『日本古代國家の構造』, 青木書店, p.175.

36) 森浩一(2003), 『継体王朝と百濟』, 『検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p.207.

치수 및 수운과 관계가 깊은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광역의 혼인담은 비와호수를 축으로 한 교역권에 의해 연결된 관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sup>37)</sup> 비와호수 연안에는 지명 상에도 오쓰(大津), 셋쓰(摂津), 미쓰(三津), 시오쓰(塩津) 등 동서남북 모두 ‘나루(津)’가 들어간 이름이 유독 많아 호상교역활동이 번성했던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와호수의 흐름은 요도강 수계에 의해 남쪽으로는 나니와(難波)항으로 연결되고 북단 시오쓰(塩津)항에서는 에치젠의 ‘쓰루가(敦賀)항’으로 연결된다. ‘쓰루가’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쓰루가아라시토의 전승이 있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배가 자주 도착하는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곳은 동해연안으로 연결되는 항로였으며 동해의 해류를 따라 한반도방면과의 교역도 빈번했을 것이며 그 때문에 해외사정에 밝고 외교 임무를 담당하는 자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하여 대외 교역활동에 의해 경제력을 축적시킨 그 지역의 호족들은 게이타이천황의 출현을 준비하는 기반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바야시 미치노리(小林道憲)도 게이타이 대왕을 배출한 일족은 에치젠 미쿠니, 쓰루가, 비와호수, 요도강의 수계의 수상교통로를 장악하고 동해를 매개로 한 한반도와의 교역과 열도의 동해연안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풍부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겸비한 해인집단으로 본 것<sup>38)</sup>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 하에 성장한 게이타이천황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6. 맺음말

게이타이천황은 고대 일본사에서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현재 천황과 황족계보의 직접적인 선조가 되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이 천황의 위상은 남다르다. 그러나 일본의 상대 문헌에는 ‘에치젠’이라는 변방 지역의 출신이라는 점과 그것도 황족의 방계 출신의 지방 수장 급 인물을 야마토조정의 권력 실세들이 직접 찾아 가 천황으로 옹립했다는 특이한 즉위 사정과 그의

37) 岡田精司(1983), 『近江王朝』, 『歴史と旅』第十卷九号, 秋田書店, p.65.

38) 小林道憲(2006),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圏-ユーラシアの文明変動を中心に』, 世界思想社, p.163.

후손 계보에 관한 기사 이외에는 그의 통치력이나 정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사는 매우 빈약하다. 아울러 그 출신 지역에 대한 기사나 전승내용도 양적, 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천황의 등극 이후 전개되는 6세기의 일본은 비약적인 발전을 구가한다. 불교의 도입, 유교 전래, 한자에 의한 기록의 시작과 그 자극 하에 상대문헌의 원전으로 여겨지는 『제기(帝紀)』와 『본사(本辭)』 등 신화 전승의 최초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부터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다시 말해 이 시기는 일본이 고대 동아시아문화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국제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통일왕권국가의 성립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게이타이천황은 일본 고대사를 넘어 고대 한일관계,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에도 중요한 연구 대상임에 틀림없다.

한편 게이타이 천황의 원향인 고대 ‘에치젠’ 지역의 5~6세기 고고학적 유물의 발굴 성과는 문헌의 제약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고대사와 동해연안 지역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지역의 지리적인 입지조건과 고분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요이시대 후반부터 동해연안은 한반도와 왕성한 해상교류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과 유적이 각지에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쿠이평야를 낀 구즈류강 유역에 축조된 4~6세기에 축조된 고분군의 양과 규모, 그리고 주형석관과 횡혈식 석실로 대표되는 매장 문화, 나아가 화려하고 다양한 부장품의 발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미쿠니’로 불리던 이 지역은 고대일본에서 대외교류의 현관이자 선진기술의 유입구였다는 것을 말없이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고대 호족은 야마토정권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약했는지 몰라도 당시 독자적인 선택과 발전을 거듭한 유력한 지역수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고고학적 발굴성과는 빈약한 문헌해석으로 자칫 소홀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게이타이천황상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게이타이천황을 옹립하는 지역기반 세력은 일찍부터 동해연안을 통해 유입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치수와 수전개척을 시행한 개척자로서의 게이타이천황을 옹립한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따라서 문헌에서 말하는 게이타이천황기는 고대 동해를 북상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해상교류 루트를 시사하는 것이며 이 루트는 단순히 동해연안의

해상루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해연안과 고대 백제지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의 환동해 문화 교류 코스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게이타이천황과 그 일족은 동해 연안지역간의 왕성한 교류와 그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그 배경으로 야마토정권의 고대국가의 초석을 마련한 동해왕조의 상징적인 리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参考文献>

- 池内宏(1970), 『日本上代史の一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p.142.
- 井上光貞(1965), 『日本の歴史1・神話から歴史へ』中央公論社. pp.474~477.
- 江上波夫(1975), 『騎馬民族國家-日本古代史のアプローチ』, 中央公論社
- 大橋信弥(1984), 『日本古代國家の成立と息長氏』, 吉川弘文館. p.112, p.118.
- 岡田精司(1983), 『近江王朝』, 『歴史と旅』第十卷九号, 秋田書店, pp.61~65.
- 片岡宏二(2006), 『弥生時代渡來人から倭人社会へ』, 雄山閣, pp.20~22.
- 鬼頭清明(1994), 『大和朝廷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p.137.
- 倉野憲司・武田祐吉(1958), 『古事記・祝詞(日本古典文学大系1)』, 岩波書店. p.264, p.334, p.336
- 小島憲之(1962), 『上代日本文学と中国文学(上)-出典論を中心とする比較文学的考察』, 塙書房. p.384.
- 小林道憲(2006), 『古代日本海文明交流圏-ユーラシアの文明変動を中心に』, 世界思想社. p.163.
- 坂本太郎他3人(1979), 『日本書紀・下(日本古典文学大系68)』, 岩波書店. pp.19~25.
- 佐藤晃一(1983), 『石棺』, 『歴史公論3-古代の日本海文化(特大号)』No.88, 雄山閣. p.117
- 白石太一郎(2006), 『墓と他界観』, 『列島の古代史7-信仰と世界観』, 岩波書店. pp.180~181.
- 塚口義信(2008), 『継体天皇の出自とその即位事情を探る(下)』『つどい』242号, p.2.
- 直木孝次郎(1986), 『日本古代國家の構造』, 青木書店
- \_\_\_\_\_ (1986), 『継体朝の動乱と神武伝説』『日本古代國家の構造』, 青木書店. p.175
- 林屋辰三郎(1971), 『日本の古代文化』, 岩波書店. pp.131~134.
- 福井県(1998), 『図説・福井県史』, 福井県, p.26.
- 三品彰英(2002), 『日本書紀朝鮮関係記事考証』下, 天山舎. pp.166~168.
- 水野祐(1970), 『日本古代の國家形成-征服王朝と天皇家』, 講談社
- \_\_\_\_\_ (1983), 『卑弥呼王朝から倭王朝へ』, 『歴史と旅』第十卷九号, 秋田書店. p.49
- 森浩一(1983), 『日本海の古代文化と考古学』, 『シンポジウム・古代日本海文化』, 小学館, p.49.

- \_\_\_\_\_(2003), 『繼体王朝と百濟』, 『検証・古代日本と百濟』, 大巧社, p.207.
- 山尾幸久(1986), 『日本古代の国家形成』, 大和書房. p.77.
- 米沢康(1992), 『繼体天皇の出身地をめぐる異伝について』, 『日本古代の神話と歴史』, 吉川弘文館, p.128
- 『図説・福井県史』(<http://www.archives.pref.fukui.jp/fukui/07/zusetsu/A03/A031.htm>, 검색  
일:2013. 4. 23.)
- 『越前の古墳と繼体天皇③』(<http://ameblo.jp/kadoyas02/entry-11356379691.html>, 검색일  
: 2013. 4. 26.)
- 『九頭龍川地域誌』(<http://www.kkr.mlit.go.jp/fukui/siryou/hen2/syou2/2kodai1.html>, 검색일:  
2013. 4. 2.)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The King Keitai and the East Sea Interact  
in Japanese Ancient Literature**

This study reviews the record about the King Keitai that appeared in the ancient Japanese literature, and searches whether there was any relationship between Echizen that is able to be seen as a base for the King Keitai and East Sea based on classic literature and archaeology. The King Keitai is very special in ancient Japan and he had a unique career in literature. In 'Kojiki' and 'Nihonshoki', that represents ancient Japanese literature, his stronghold was in Echizen, and his force grew up in the region of western Japan equivalent to Korea of the East Sea. After this King's period, in 6th century, Japan has developed rapidly and became a member of East Asian cultures and faced the new globalization. In this period, Japan had the turning point that lay the fountain of unified royal state. So, the record of King Keitai is the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ancient Korea-Japan relationship through the ancient history of Japan,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interchange of ancient East Asia culture. Meanwhile, the result of excavation of archaeological relic equivalent to the period of ancient burial mounds in 4-6th century in ancient 'Echizen' area known as base of King Keitai in the literature highly changes the knowledge about ancient history and East Coast area beyond the literature's limit. And lately continuously developing archaeological result sets up a chance to rediscover the image of King Keitai that could be passed carelessly if we only see the poor analysis of literature.